

“호남 발전이 국가 발전…지역 인재 육성 힘 쏟겠다”

창립 ‘호남미래포럼’ 김성호 상임운영위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은 지역개발과 인재양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 공론화해 중앙정부와 기관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호남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해 공론화할 것입니다”

호남미래포럼의 발족 및 운영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늘 고문과 공동대표,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운영조직을 확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창립 배경에 대해 “광주·전남 원로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호남의 인사 소외와 낙후를 이대로 놓아두면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호남 발전이 곧 국가발전이고 사회통합과 연계된다는 인식에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계기에 대해 “지난해 8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지역출신 원로 10여 명이 식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호남 소외와 국가발전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 모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며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 되고 순수민간인들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했으며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실천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호남 차별의 내용에 대해 “지금 3부 요인과 국세청, 검·경찰 등 5대 권력기관장에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위 힘끼나 쓰는 부처의 국장 등 핵심 보직에 호남 출신이 적어 상위직급에 승진시키려 해도 인재가 없어 못 올라간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과 삼성·LG 같은 대기업에도 임원직에는 호남 출신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런 인

재등용 기회 부재와 더불어 지역산업 낙후에 따른 소외에 호남인은 신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미래포럼이 ‘안철수 신당’ 등 정치를 위한 조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는 무관한 모임이다”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나 지금도 고향에서 후진양성·한총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손수의 전 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이 이제 와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호남미래포럼의 제1원칙이 철저한 비정치성과 비당파성이다”며 “부득이 선거에 나갈 여건이 되면 바로 사퇴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구성원이 모두 광주·전남지역 인사들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 출신의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우 전 전북도지사, 이연태 전 장관 등에게 호남미래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더니 기꺼이 동참의사를 보였다”며 “다만 동참 방법으로 전북에서

도 대표성 있는 분들이 1월 중에 포럼을 창립, 발족 행사를 독립적으로 갖고 한 두번의 세미나를 한 후에 광주·전남과 통합해 명실공히 호남발전포럼으로 탄생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에 호남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을 분석하고, 호남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공론화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호남의 인재육성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나아가 산업의 낙후에 대해서도 실태분석을 통해 왜 호남의 산업(경제)이 낙후됐는지를 분석하고, 지역민과 출향민이 힘을 모아 호남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남미래포럼은 광주·전남 사회 각계각 층 인사 303인이 주축이 돼 지난해 12월3일 창립 대회를 하고 발족한 모임이다.



광주시교육청, 수상 포상금 결식학생 후원

재광운남향우회, 무안 운남면에 쌀·금일봉



재광운남향우회(회장 채철성)는 최근 무안군 운남면사무소에서 창립회장 기노학 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쌀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재광운남향우회 제공〉

광주 동구, 평생학습도시 평가 ‘최우수’



광주시 동구(구청장 노희용·사진)는 광주시가 주관한 ‘2013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 2년 연속 상 사업비 명목으로 8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지난해 협동조합을 주제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COOP-아카데미’를 진행한 점과 광주 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모든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전남 ‘아너소사이어티’ 10호 목포 박홍률씨



목포에서 개인 고액기부자(1억원 이상)인 ‘아너소사이어티’ 10호 회원이 탄생했다. 전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박홍률(60) 목포희망21 세기 포럼 대표가 5년간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 위원회 역임하고 국가정보원 충북도지부장을 거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사랑의 손길이 절실했던 곳은 수없이 많은데 모두 미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중 아너소사이어티 기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이 수상 포상금을 잇따라 빚고 결식학생후원재단에 기부했다.

광주교육상을 받은 박형택 제육복지건강과장은 최근 수상 포상금 전액을 빚고 결식 학생후원재단에 기탁했다.

박 과장은 “교직생활의 보

람을 마지막까지 저소득 학생의 급식지원에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 38년간 학생교육에 헌신·봉사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전력해 광주 학생들의 체력을 전국 수위로 끌어올렸다. 또 소외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교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과 소통·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높이 인정받아 광주교육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과정과 직원들도 ‘1행1무 실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을 빚고 결식 학생후원재단에 기부했다.

‘1행1무 실천’운동은 광주시교육청이 ‘소통과 협력, 신뢰와 지원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과는 ‘1행1무 실천’ 기관 심사에서 ‘돌봄 나눔, 생각 나눔’을 통한 마음 나눔’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장은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직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일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흥 천관농협, 45개 노인당에 쌀 250포대



장흥 천관농협(조합장 윤형호)은 최근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모금한 성금으로 쌀(20kg) 250포대를 마련해 관내 45개 영농회 노인당에 전달했다.

〈장흥=김용기자·중부취재부본부장 k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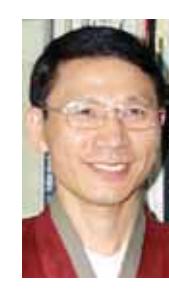
KT, 신년 무등산 탐방객에 다과 제공



KT 전남고객본부(본부장 김상균)와 사랑의봉사단은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장터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성공 기원과 탐방객들에게 음료·가래떡 등을 제공했다.

〈KT 전남고객본부 제공〉

손희하 전남대 교수, 한국지명학회장 재선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손희하 교수가 한국지명학회 회장에 재선임됐다. 임기는 2016년 2월까지 2년간이다.

한국지명학회는 지명연구 관련 분야의 학자 300여명이 참여해 지명이나 관련 자료를 발굴·조사·연구하고, 중앙과 지방 차지단체를 비롯해 각급 기관의 지명 관련 정책 수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지명 전문 학회이다.

손 교수는 “지명학이 명실공히 융합학으로 자리잡기 위해 학자들의 연대와 결집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으로 인해 겨레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래 지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점에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

김상균 광주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처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균(52) 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부임했다.

신임 사무처장은 광주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지난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사해 충남공동모금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해 왔다.

김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는 전체 모금액은 적지만 정기기부 비율이 높고 기부금도 꾸준히 늘고 있어 희망적이며 앞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골든벨 울린 83세 할머니 순천 권정자씨



순천시는 지난 7일 KBS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2014년 설 문화체육 특집 KBS 도전 골든벨에서 권정자(여·83·연향동)씨가 우승했다고 밝혔다.

KBS 도전 골든벨은 매주 전국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방송했으나 이번 설 특집은 늦은 나아에 한글을 깨우치는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한글학생, 행복골든벨’이란 주제로 열렸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권씨는 지난 2006년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한글작문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성인문화 백일장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은경기자 ejkim@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형철·장종순씨 장남 주남군 신양수(광주일보)·박영임씨 치녀 현주양=11일(토) 오후 1시 겨자씨교회(남구 봉선동) 1층 062-650-1700.

▲김명우(건화 부회장·전 전남도 청 근무)·성정순씨 차남 남균(신성간 설 대리)군 안창근·박윤례씨 치녀 순영양=11일(토) 오후 1시30분 흘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62-385-7000.

▲이강우(원광대 교수·매기청소년 사학교육원 상임이사)·서경란씨 장녀 미지양 강태구·김순임씨 장남 원제군=11일(토) 오후 1시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A홀, 당일 오후 8시 광주 동구 학운동 동구청소년수련관 앞 전세버스 출발.

▲강점순·박석자씨 장남 기용(광주과기기술교류협력센터)군 김정훈(지오메디컬 상무이사)·정문희씨 장녀 유지양=11일(토) 오후 11시 아이리스웨딩홀 1층 베스ホール.

▲정성균(무등산CC 사장)·최복숙씨 장남 원철군 김경수·백점순씨 장녀 현희양=12일(일) 오후 1시 ST라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종친회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장 강원구) 자문회의 개최=10일(금) 오후 5시 진주강씨 종회회관 3층 사무실 062-228-3368.

▲(사)전주이씨 대동종양원 광주·전남 지원원 이화회 월례회의 및 제38회 정기총회(회장 이승봉)=14일(화) 오후 6시.

동창동문회

▲광주체육중고 총문회 신년의밤 겸 회장 이취임식(회장 김도형)=11일(토) 오후 6시 농성동 알펜시아 웨딩홀 1층 062-369-490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

동문회(회장 전주언)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14일(화) 오후 6시30분 농성동 라파스타(옛 메리어트 웨딩홀 4층 루시아홀 062-361-2680).

▲광주승의고 총동창회(회장 최경채) 신년하례식=15일(수) 오후 6시 퀸스컨벤션웨딩홀(광주 북부경찰서 부근 옛 혁성웨딩홀) 062-369-1000.

일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승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 = 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8시~오후 6시) 062-366-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